

동북공업기지 녹색에너지 창출로 재도약 꿈꾼다

동북 에너지의 ‘녹색’ 전환에 박차를 가해 국가 에너지 안보 기반 튼튼히



료녕성 대련 장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해상풍력이 린근 해역까지 불어오고 비옥한 토양 우로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다. 우리 나라 동북지역의 광활한 대지는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 블레이드, 빼곡이 들어서있는 태양광 패널, 밀집된 송전선이 한데 어우러져 현대에너지가 만들어낸 장관을 연출한다. 대자연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키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로 재측정돼 동북 에너지 ‘녹색’ 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동북지역은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현대에너지 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해 오래된 공업기지에 녹색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 에너지 안보 토대 튼튼히

최근 수년간 우리 나라 동북지역의 청정에너지에서 생산된 ‘녹색전기’가 국내 각지로 흘러가고 있다.

황해 수면 위로 약 100미터 높이의 풍력발전 블레이드 300여대가 우뚝 솟아있다. 이는 중국화능그룹의 대련 장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북부 단일용량 최대 출력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이다. 연간 발전량은 17억 3,000만키로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료녕성의 청정에너지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의 50%를 돌파해 청정에너지 발전이 새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내 중요한 에너지 생산기지인 대경유전은 신에너지를 주된 업무로 격상시켰다. 올 7월말 기준 흑룡강성의 신에너지 설비용량은 2,197만 7,500키로와트로 전체의 46.64%를 차지한다. 길림성 장춘시에서 서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바람’과 ‘태양’이 만들어낸 산업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최근 길림성의 신에너지 설비용량은 전체의 40.4%를 차지하며 석탄발전을 넘

어서 길림성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잡았다. 내몽골자치구 커얼친을 포함한 사막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 패널이 가리던히 배열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래바다였던 사막이 ‘푸른 바다’로 거듭났다. 내몽골자치구에너지국 해당 책임자는 “지난 5월말 기준 내몽골의 신에너지 설비용량은 1억 158만키로와트에 달했다.”며 “성급 지역으로는 최초로 1억키로와트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신에너지 발전량은 1,063억키로와트시로 3,295만 3,000톤의 표준석탄 사용과 8,759만 1,2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 녹색전기가 불어넣은 새 발전동력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춘 동북지역의 오래된 공업기지는 신에너지의 현지 소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 건설 및 발전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한때 ‘석탄·전기·알루미늄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내몽골의 홀린고러시(霍林郭勒市)는 2019년부터 녹색전기의 종합 공급 능력 강화 및 전기 사용 비용 절감을 통해 알루미늄산업의 녹색화·집산화·고급화 발전을 촉진했다. 이후 ‘녹색전기 알루미늄의 도시’는 홀린고러의 새로운 명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동북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저장 설비 규모가 계속 확대돼 전력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신에너지 소비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 장비제조 집산지 발전으로 에너지경제 산업시슬 확장

오래된 공업기지였던 동북지역은 제조업의 비교 우위를 토대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각지에서는 여러 기회를 포착해 신에너지 산업 집산지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흑룡강성 치치할시의 중국제일중공업 통신복합소재회사 공장에는 길이 98미터, 무게 28.6톤에 달하는 풍력발전 블레이드 약 200개가 늘어있다. “올해 주문량은 이미 다 졌다. 300여세트의 주문을 받아 지난해보다 일감이 두배 이상 늘었다.” 회사 책임자 서씨의 말이다. 탁월한 과학연구력을 바탕으로 동북지역은 최근 수년간 산업·연구 융합을 추진해 신에너지 산업의 핵심기술을 돌파하고 산업의 고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길림성에서는 또 우리 나라 최초의 수소에너지 도시철차가 시험 운행을 실시해 수소에너지 궤도교통 분야 응용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자원은 동북지역의 그린 수소산업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료녕성 대련시에서는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 수소에너지 견인 전기 프로젝트, 수소에너지 제품 연구개발 및 검사중심 프로젝트 등 수소에너지산업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중국(료녕)자유무역시험구 대련지역의 관련 생산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화사

1월—7월 신규 대출 13조 5,300억원 이상

올 1월—7월 우리 나라 대출이 확장세를 이어갔다. 중국인민은행이 일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인민페 대출이 13조 5,3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중 7월말 기준 광의 통화(M2) 잔액은 303조 3,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확대됐다. 협의통화(M1) 잔액은 63조 2,300억원으로 6.6% 감소

했다. 한편 1월—7월 우리 나라 사회융자는 18조 8,700억원이 늘어 전년 동기보다 3조 2,200억원이 축소됐다. 이 기간 실물경제에 투입된 인민페 신규 대출은 12조 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말 기준 인민페 대출 잔액은 251조 1,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확대됐다. / 신화사

연길 3개 도시 출입구 록화공사 완공

최근 2년간 연길시는 ‘연길 록화미화’ 행동을 힘껏 추진하여 연길을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건설하는데 진력했다. 도시의 문호인 출입구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인상을 남긴다. 지난해 연길시는 연길 북, 서, 남 3개 도로 출입구 록화설계방안을 완수하고 착공했으며 록화경관을 통해 연변의 가문의 고향, 축구의 고향 등 형상을 보여줬다. 20일, 3개 출입구의 록화공사가 완공, 부동한 주제의 록화경관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준다. 자가운전 려행으로 연길에 온 관광객들은 북쪽 출구에서 고속도로를 내려오면 여러개의 특색 있는 대형 무용조각상을 보게 된다. 조선족의 대표적인 상모춤과 장고춤의 요소를 결합한 조각은 우아하고 색채가 화려하며 연변의 가무문화를 잘 보여준다. 연길서 출구의 축구운동을 핵심 요소로 한 표지성 조형물은 축구에 대한 연변인민의 열애를 전시했다. 인행보도의 출발점과 연선에는 “연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글자로 된 경관소품과 료형명근거지 표식소품, 축구 고향의 특색이 있는 문화소품을 설치하여 ‘활기찬 연길’의 설계 리념을 충분히 보여준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라고들 하는데 이번에 연길에 오자마자 느꼈다. 축구 요소를 넣은 록화를 보고 연변사람들이 정말 축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흑룡강에서 자동차로 연변에 온 리선생은 서쪽 출구 휴게소에서 휴식할 때 가족들

과 함께 록화경관을 감상하면서 감탄했다. 연길남 출구의 경관 설계는 단결 연길, 상호방조를 주제로 했다. 동시에 록화와 도로 형태를 결부하여 각종 식물을 심고 단결호조 조각, 산체 록화 및 배경림과 결부하여 연길시의 ‘여러 민족 단결’의 도시 풍모를 전시했다. 절강성 금화시의 객선생과 그의 가족은 피서하러 연변에 왔다. 반달이 되는 시간에 이들은 연변의 8개 현, 시를 모두 둘러보았다. “연변의 도시들은 모두 특점이 있다. 특히 연길시는 매개 고속도로 출입구마다 경치가 다르다. 레하면 우리가 룡정에서 연길로 돌아올 때 첫눈에 보인 것은 민족단결 조각상이었는데 이곳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인츰 알 수 있었다.” 객선생은 이러한 부동한 주제, 조형이 다른 경관으로부터 연길시가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명함을 만드는 데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낼 수 있으며 확실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의 3개 도시 출입구의 록화 대상은 총 부지면적이 7만여평방메타이고 도합 2,700여그루의 교목을 심었으며 총 투자가 3,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대상은 ‘연길 록화미화’ 행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연변지역의 생태특색과 민족특점을 구현하고 대중의 행복지수와 긍지감을 높이는 민생공사이다. / 중국길림넷

황금 가격, 왜 아직도 오르고 있는가?



황금 가격이 재차 역사기록을 창조했다. 지난 16일 국제 현물 황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주 화요일, 현물 황금 가격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때 온스당 2,520달러를 넘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제 황금 가격의 루직 상승률은 20%를 초과하여 연내 최고치를 경신한 회수가 20회를 초과했다.

1년 동안 오르고 있는 황금 가격, 왜 아직도 오르고 있는가? 우선은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 의 화폐정책 때문이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은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가 9월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가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황금 투자가 줄어들어 금값이 하락한다.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가 금리를 내리면 은행에서 다시 금시장이 되면 금값이 상승한다. 둘째는 지정학적 요소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해 전통적인 위험 회피 자산인 황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세계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각국 중앙은행이 오래동안 황금 보유량을 늘여온 점도 금값의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세계 중앙은행의 황금 보유량 증가량은 48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럼 금값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전문인사는 현재 국제 지정학적 위험 등 방면으로 고려하면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지만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가 금리 인하 주기에 들어서면 금값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경우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면 장기적 혹은 초장기적 황금 보유는 일정한 통화팽창 저항 효과가 있지만 황금 가격의 변동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시장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 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인민넷

〈흑신화:오공〉 판매량 1,000만세트 돌파

〈흑신화:오공〉심수시유과호동과학기술유한회사는 소식을 발표하여 8월 23일 21시 정각까지 〈흑신화:오공〉전 플랫폼 판매량이 1,000만세트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흑신화:오공〉은 《서유기》를 소재로 한 국산 ‘3A’ 게임으로 심수시유과호동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제작했다. ‘3A’게임은 일반적으로 고비용, 고체량, 고품질의 단독 기종 게임 작품을 가리킨다. 그동안 이 시장은 주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나라의 게임사들이 점유했었다. 심수시유과호동과학기술유한회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흑신화:오공〉전 플랫폼의 최고 동시 접속자수는 300만명에 달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흑신화:오공〉및 그 주변 모두 광범위한 주



절강의 한 소매점에서 게임 체험을 하고 있는 게임애호가

목을 받고 있다. 레를 들면 〈흑신화:오공〉은 관련 하드웨어 설비

의 판매를 이끌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하드웨어 설비의

검색량이 뚜렷이 늘어났다.〈흑신화:오공〉은 전국의 여러 풍경을 게임 배경으로 선택했으며 적지 않은 풍경구는 온라인 관광 플랫폼에서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계 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흑신화:오공〉의 정교한 화면과 우수한 제작은 우리 나라 게임산업의 쾌속 성장을 반영한다. 동시에 중국 고전문학 명작을 소재로 한 이 게임은 중국 문화의 매력을 반영한다.〈흑신화:오공〉의 성공은 국내 기타 회사의 참여를 이끌어 더 많은 중국 문화, 중국 IP를 채용해 게임을 제작하고 새로운 표현을 통해 전통문화의 왕성한 생명력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화사

세수 수치, 7월 우리 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 대변

일전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 각종 거시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시장주체의 매출이 꾸준히 회복되고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령수증 자료에 따르면 7월 우리 나라 산업경제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산업기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여 2분기 성장률보다 1.7%포인트 높

았다. 신질생산력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고도기술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전자·통신 장비 제조, 철도·선박·항공 장비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매출은 모두 투자리수 성장을 유지했다. 기계설비 갱신, 소비재 보상교환 판매 효과가 뚜렷했다. 전국 기업

의 기계설비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 2분기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그중 산업, 교통 등 중점 분야의 기계설비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와 14.8% 증가하여 2분기 성장률을 크게 앞섰다.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정책은 주민들의 소비 잠재력이 질서 있게 방출되도록 유도하여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소매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가구 소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함으로써 2분기 성장률을 뛰어넘었다. 경영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올해 7월말까지 전국 신규 조세 경영주체 가구수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그중 령수증 수령, 소득 신고가 있는 경영 가구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전체 신규 등록 경영가구의 67.4%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 중앙방송